

# 지난해 광주 인구유출 전국 1위...20대 엑시트 가속화

### 0.6%, 9017명 떠나...순유출률 전국서 가장 높아 전남은 1800명 유출...20대 -3.4% 가장 많이 떠나

광주가 인구유출이 전국 인구유출 1위라는 오명을 얻었다.

지난해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순유출률'을 기록했는데,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국내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순유출률은 -0.6%로, 울산(-0.6%)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순유출률은 인구 100명당 순유출된 인구 수를 가리킨다.

광주는 울산과 동일한 순유출률을 기록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광주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태다. 지난 2022년에 순유출률 -0.9%를 기록한 울산은 지난해 -0.6%로 감소했지만, 광주는 전년 -0.5%에서 오히려 -0.1%p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단독 1위인 셈이다.

지난해 광주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은 인구

순유출 상태를 보였다.

지난해 광주시에는 16만3000여명이 전입하고, 17만2000여명이 전출해 순유출 9017명을 기록했다.

인구 순유출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22년 7642명 순유출했지만, 1년 새 광주시 순유출 인구가 18% (1375명) 증가했다.

연령대별 순유출률은 20대가 -2.2%로 가장 심각했고, 30대(-1.1%)와 10대 (-0.5%), 60대(-0.5%), 50대(-0.4%) 순으로 이탈이 많았다.

특히 광주시 20대 순유출률은 지난 2019년 -1.3%에서 5년 새 2.2%로(-0.9%p) 심화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동구에서만 2896명이 순유출됐고, 광산구(-3641명), 서구(-2987명), 남구(-2453명)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 2012년부터 12년 동안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는 상태다.

전남은 지난해 순유출률 -0.1%를 기록했다. 18만4000여명이 전입했고, 18만5800여명 전출해,

1800명의 순유출 인구가 발생했다.

전남 역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유출됐는데, 인구 순유출률은 20대가 -3.4%로 가장 높았고, 10대(-0.7%), 80세 이상(-0.6%) 순이었다.

특히 전남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순유출률이 늘어난 광주와 달리 30-60대 모든 연령층에서는 순유입 흐름을 보였다.

50대가 +0.8%로 가장 많이 늘었고, 60대(+0.7%), 30대(+0.5%), 40대(+0.5%) 순으로 집계됐다.

50-60대 순유입 원인은 귀농, 30-40대는 대대적인 주거 안정 정책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나주(+1361명), 신안(+749명) 등 10개 시·군에서 인구가 순유입됐고, 여수(-1864명), 목포(-1850명) 등 12곳에서는 순유출됐다.

전남은 지난 1999년 이후 24년째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출된 광주시민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전남(43%)이었고, 서울(15.2%), 경기(13.8%)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35.1%가 광주로 향했고, 경기(16.8%)와 서울(14.0%) 순으로 많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NH농협은행 글로벌박람회 금융교실 부스

### 은행원 체험·모바일 모의투자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는 대학생 봉사단 'N돌핀'과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서 '행복채움금융교실' 부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행복채움금융교실은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부·전남도청·경북교육청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22개 국가의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해 총 1591개 부스가 운영된다. 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박람회에 참여한다.

농협은행 부스에서는 실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지폐계수기 및 통장단말기 등을 비치해 금융기기 사용법을 설명하고 고객 응대와 통장 개설로 구성된 은행원 직업 체험을 비롯해 나만의 저금통 만들기, 모바일 모의투자, 금융교육 보드게임 등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재현 본부장은 "세계적인 IT기업, 교육 선진국들을 비롯한 20개국 이상이 함께하는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 농협은행이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



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금융체험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협 광주본부·삼도농협

### 농기계 임대사업 연중 운영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30일부터 삼도농협(조합장 오종선)에서 관내 농업인 대상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삼도농협은 이날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 클라스콤바인, 콩파종기, 방제용 드론 등 총 8종의 농기계를 유·무상으로 임대해 농업인들의 작기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도농협은 노동력 절감에 효과가 큰 농기계임대 수족, 가격이 비싸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농기계를 저렴한 임대료 또는 무상으로 제공해 영농인력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종선 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통



해 육묘상적재기, 파레트랩핑기 등의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는 등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종류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사업

을 통해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전남 중소기업 S.O.S. Talk



## 중소벤처진흥공단 '호남권 S.O.S. 간담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9일 중소기업 읍부즈만과 '호남권 S.O.S. Talk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전남동부지부·전북·전북서북지부가 함께 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각종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조선업계의 인력 관련 애로가 집중 제기됐고, 전북에서는 식품분야 기업들의 건의를 들었다. 조선업계는 우선 친환경 선박 구성부품 제조기업인 A기업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배정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읍부즈만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기업애로를 전달하고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희순 읍부즈만지원단장은 "이들동안 호남지역 산업발전의 주축을 맡고 있는 조선, 식품, 농생명바이오 분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들으면서 큰 보람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다"며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엔비디아, 테슬라 제치고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 등극

4년 만에 보관금액 1위 종목 교체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으로 등극했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금액은 110억7690만달러(약 15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같은 날 테슬라 보관금액은 106억7794만달러(약 14조7000억원)로 엔비디아에 근소하게 뒤처졌다.

올해 약 5개월간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11억8510만달러(1조6000억원), 엔비디아는 5억1599만달러(7000억원) 순매수 결정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매수 결재 규모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많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가 테슬라를 압도하면서 주가를 반영하는 보관액 규모는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앞지를 수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금액 1위 종목 교체는 약 4년 만이다. 테슬라를 2020년 7월 아마존을 누르고 3년 11개월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 종목이었다.

특히 2021년 이후 2위 종목 애플과는 보관액이 2배 이상으로 차이를 보였다.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인 둔화세에 접어들고 일론 머스크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 등으로 테슬라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연초 250달러선에 근접했던 테슬라 주가는 약 5개월 동안 30% 하락했으며, 미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